

資料整理에 있어서의 目錄 問題

閻 政 子

目 次

- 1) 目錄의 意義
- 2) 目錄의 種類와 實例
- 3) 目錄의 規則과 그 問題點
- 4) 目錄의 利用指導
- 5) 結 論

1. 目錄의 意義

目錄이란? 圖書 또는 그 以外의 各種 資料(新聞, 雜誌, Pamplet, 映畫 film, Slide, Record, 포스터, 地圖, 사진, 繪畫, 古文書, 報告書, 會議錄, 音盤等)에 關한 書誌的 內容을 一定한 規則에 依하여 簡單히 記錄하고 다시 體系的인 順序에 依하여 排列하여 利用者로 하여금 便利하게 檢索할 수 있도록 하는 一種의 技術的 手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目錄은 一定한 資料를 蓄積된 資料(主로 圖書)의 무더기속에서 利用者로 하여금 願하는 資料를 보다 더 신속 正確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圖書館의 機能이 활발히 수행되기 위하여는 目錄이 얼마 만큼 質的으로 잘組織되고 構成되어 있는가에 全的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情報時代에는 時間을 다투어 수 많은 資料들이 밀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資料의 目錄도 그만큼迅速正確하게 整理해야만 할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物的 資源은 잘 訓練된 專門司書의 効率的奉仕와 더불어 비로소 圖書館의 使命을 最大로

達成시켜 주는 바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大學圖書館은 學生들에게는 學習과 關聯되는 모든 活動이 展開되는 學習 Center로서의 圖書館이 되어야 하며 教授 및 校職員들에게는 研究分野와 業務에 關聯되는 資料 Center로서의 役割의 擔當을 可能하게 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즉 正確하고 迅速한 書誌的 情報를 재빨리入手하여 그때 그때의 質議 應答에 對處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圖書館의 目錄은 實際로 어떻게 組織되어 있으며 그 構成은 어찌한가? 를 알아보기로 하자.

2) 目錄의 種類와 實例

먼저 利用者가 圖書館의 目錄을 보고자 할 때에는 우선 自己가 願하는 資料의 著者名이나 書名, 또는 主題名等 그 中의 한가지를 알고 찾을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다음과 같은 圖書館의 目錄이 되는 것이다.

- ① 著者目錄(Author Catalog); 著者名順으로 排列된 것으로 共著者, 譯者도 포함한다.
- ② 書名目錄>Title Catalog); 書名順으로 排列된 것으로 原書名,叢書名도 포함한다.

③ 分類目錄(Classified Catalog); 內容別로 區分한 分類番號順으로 排列된 것으로 分類分出도 포함한다.

이와같이 目錄은 누가 어떤 冊을 어디서 언제 어떤 形態로 出版하였는가? 하는 물음에 對答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目錄들은 주로 閱覽者, 즉 利用者들이 自己가 願하는 資料의 所藏 有・無를 把握하고 또한 그 資料의 位置를 찾기위한 手段으로써 利用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閱覽用目錄(Public Catalog)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目錄은 閱覽者 즉 利用者만을 위하여 必要한 것인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圖書館의 이미 所藏된 資料를 훌륭히 管理하고 또 앞으로 들어올 資料의 範圍와 整理의 計劃을 위해서도 不可缺의 道具로서 使用되는 것이 바로 열람용 目錄이 아닌 整理者(司書)들이 使用하는 事務用 目錄 (Official Catalog)으로서 여기

- 目錄
- (1) 事務用目錄(Official Catalog)
 - ① 基本目錄(Main Catalog)…주로 重複調查用.
 - ② 書架目錄(Shelf Catalog)…주로 藏書點檢用.
 - ③ 著者目錄(Author Catalog)
 - ④ 書名目錄(Title Catalog)
 - ⑤ 分類目錄(Classified Catalog)
 - ⑥ 主題名目錄(Subject Catalog)
 - (2) 閱覽的目錄(Public Catalog)

※ 基本 Card의 例.

843.9
C159eKj Camus, Albert.
追放, 알베르 까뮈 著, 趙聖峰 譯.
서울, 探究堂, 4291(1958)
220 p. illus. 19 cm.
4281
原書名 : L'Exil et le royaume.

에는 基本目錄(Main Catalog)과 書架目錄(Shelf Catalog)이 있다. 먼저 基本目錄은 여러가지 目錄의 土臺가 되는 目錄으로써 여기에 根據하여 各種 閱覽用 目錄을 作成하게 되며 또 目錄作業을 繼續해 나가는데 여러가지 問題點, 즉 標目選定, 資料의 版次 및 重複調查等을 하며 그 排列은 標目的 Alphabet順이다.

다음으로 書架目錄은 書庫속의 圖書의 排列順序와 같으므로 分類의 統一을 期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週期的으로 行하는 藏書點檢에 重要한 役割을 하며 이는 分類한 請求記號順에 依하여 排列된 것으로 바로 이 書架目錄은 分類의 訂正이나 必要에 따라 分類目錄 代身 閱覽用으로도 利用할 수 있는 利點도 있다. 이와같이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目錄들을 具體的으로 쉽게 다시 記載한다면 다음과 같다.

※ 書架 Card의 例

843.9
C159eKj Camus, Albert.
追放, 알베르 까뮈 著, 趙聖峰 譯.
서울, 探求堂, 4291(1958)
220 p. illus. 19 cm.
4281
原書名 : L'Exil et le royaume.

※부출지시의 예

1. 843.9
I. Jo, Seong-bang, tr.
II. T. ; Chu-bang.
III. O.T. ;

서가카드에는 부기입지시가 없음

※ 著者 Card의 例.

843.9
C159eKj Camus, Albert.
追放, 알버트 카뮈 著, 趙聖峰 譯.
서울, 探求堂, 4291(1958)
220 p. illus. 19 cm.
原書名 : L'Exil et le royaume.



기본카드와 동일한 내용이나, 등록번호와 부기입지시가 없음

※ 書名 Card의 例

843.9 Chu-bang
C159eKj Camus, Albert.
追放, 알버트 카뮈 著, 趙聖峰 譯.
서울, 探求堂, 4291(1958)
220 p. illus. 19 cm.
原書名 : L'Exil et le royaume.



※ 譯者 Card의 例.

Jo, Seong-bang, tr.

843.9
C159eKj Camus, Albert.
追放, 알버트 카뮈 著, 趙聖峰 譯.
서울, 探求堂, 4291(1958)
220 p. illus. 19 cm.
原書名 : L'Exil et le royaume.



※ 原書名 Card의 例

L'Exil et le royaume.

843.9
C159eKj Camus, Albert.
追放, 알버트 카뮈 著, 趙聖峰 譯.
서울, 探求堂, 4291(1958)
220 p. illus. 19 cm.
原書名 : L'Exil et le royaume



※ 分類 Card의 例.

843.9
C159eKj Camus, Albert.
追放, 알버트 카뮈 著, 趙聖峰 譯.
서울, 探求堂, 4291(1958)
220 p. illus. 19 cm.
原書名 : L'Exil et le royaume.



843.9

C159eKj Camus, Albert.

追放, 알버트 카뮈 著, 趙聖峰 譯.

서울, 探求堂, 4291(1958)

220 p. illus. 19 cm.

原書名 : L'Exil et le royaume.

3) 目錄의 規則과 그 問題點

目錄規則이란 目錄을 作成하는데 있어서 記述上의 統一을 期하고 또 그 記載事項에 一定한 規則을 定하여 그대로 實施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各國에서 나온 여러가지 많은 種類의 目錄규칙이 있으나 그中에서도 우리나라의 西洋書 目錄은 주로 英·美 목록規則을 따랐고, 東洋書 目錄은 韓國 圖書館 協會에서 나온 韓國 目錄 規則을 따랐다. 英·美 規則이라 하면 標目的 選定과 記入形式은 美國 圖書館 協會(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英美 目錄規則(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을 말하는 것이고, 標題 以下의 記述에 관한 規則은 美國 國會圖書館의 記述 目錄規則(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을 말하는 것이다. 이 밖에 많은 目錄規則들이 있으나 紙面 關係상 서울大學校의 目錄法만을 간추려 보기로 하자.

서울大學校의 目錄의 標目 選定은 주로 美國 圖書館 協會의 著者 書名 記入 目錄規則(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을 따랐으며 目錄의 技術形式 역시 美國 國會 圖書館의 目錄 技術規則(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을 따랐으며 결 들여서 英

美 目錄法(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을 參考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다 完了된 후의 目錄의 排列도 또한 美國 圖書館 協會의 目錄 Card의 排列規則(American Library Association, Rules for Filing Catalog Cards)을 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諸 規則을 適用할 때에 西洋書에서는 그래도 별 다른 問題點이 없었지만 韓國을 비롯한 中國, 日本等 東洋書에 한해서는 적지 않은 問題點이 나타나 곤하였다. 그래서 中國, 日本 및 韓國資料의豫備目錄 執務規定(Preliminary Rules and Manual for Catalogi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Materials)을 參考하고 있으나 여전히 未備한 問題點들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위에 詳述한 諸 規則들은 事實上 綜合化되기 直前의 本館(附屬 圖書館)에서의 規則일 따름이지 서울大學校 全 圖書館[本館十分館(單科大學別圖書館)]의 規則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많은 各 分館 圖書館에서는 그 圖書館의 實情에 맞도록 그 나름 대로의 規則을 適用하여 整理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弊端들을 없애기 위하여 本館 圖書館에서는 서울大學校 圖書館 綜合目錄(Union Catalogu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事業을 시도하여 多少의 問題點을 解決하였으나 아직도 目錄의 標目選定이나 目錄記述, 그리고 目錄排列上의 여러 가지 많은 問題點을 招來하고 있어 그것들의 一元化가 時急히 要請되고 있다. 그 問題에 있어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울大學校 目錄의 特徵인 標目的 로마자 使用(東洋書인 경우)의 문제일 것이다. 本館과 分館의 目錄이 一致되지 않은 점도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하겠다. 分館에서는 標目的 로마자를 使用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말을 가·나·다順으로 排列하여 使用하였으며 또한 로마자를 使用하였다 하여도 이용자에게 그 表記가 익숙하지 못하여 많은 修正을 要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각 分館마다 다른 tool(圖書館 整理에 必要한 各種 道具로서의 參考 書籍)의 使用으로 인하여 目錄이 本館과 틀린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點들을 어떻게 解決하여야 할 것인가를 檢討해 보기로 하자.

4) 目錄의 利用指導

따지고 보면 目錄의 形式도 그렇게 複雜한 것만도 아니며 어떤면에서는 그저 平凡한 問題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問題 解決의 要訣은 반드시 어렵고 複雜한 가운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簡單하고 至極히 常識的인 範圍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낼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目錄의 記載形式도 利用者로 하여금 容易하고 正確하게 利用할 것을前提로 해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圖書館도 利用者로 하여금 로마나이즈의 使用法(東洋書인 경우)에 對한 完全한 理解와 閱覽用 目錄의 排列上의 몇가지 規則을 쉽게 習得하였다면 그 目錄의 利用法 역시 별로 어려운 問題點은 아닐 것이다. 東洋書의 로마나이즈를 使用하므로 씨 整理者(司書)로 하여금 整理하는데에 많은 時間이 걸리고 利用者에게는 利用上의 여러가지 不便한 점이 있는 等 몇가지 短點이 있는 反面에 東洋書와 西洋書가 書架上이나 目錄函에 있어서 다 같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점과 翻譯書인 경우 原著者나 原書名을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틀린 發音으로 찾지 않고 本來의 發音, 本來의 글자 즉 正確한 글자와 正確한 發音 그대로 찾을 수 있는 等 몇개의 長點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로마나이즈의 短點을 없애고 長點만을 잘 살리는 것이 우리 서울大學校 圖書館의 目錄 利用法의 最大의 使命을 發揮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直接 東洋書를 整理해 나가는 司書들이나 몇몇의 뜻 있는 主務者들은 自己自身들의 實力培養에 힘 써야 함

은 물론이려니와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使命感을 가지고 로마자 表記에 익숙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수시로 로마자 表記法을 認識시키고 그 使用法을 친절히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어 떤때는 學生들이 로마자 表記法을 몰라 著者名이나, 書名 目錄은 아예 찾아 보지도 않고 一方的으로 分類 目錄函에만 매달려서 찾기 때문에 Card Box가 뽑아져 그 順序가 뒤 바기는 等 目錄을 利用하는데에 많은 혼잡을 이룰뿐만 아니라 유난히 그 目錄만 더럽혀지는 수가 많다. 이러한 問題點도 결국 目錄의 利用法의 無知에서 온 結果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점차로 是正되어져야 할 것이다. 圖書館이 아무리 좋은 資料가 많고 훌륭한 施設이 갖추어져 있을 지라도 그 利用者로 하여금 圖書館의 利用法과 節次를 모른다면 圖書館의 機能은 麻痺되었다고 해도 결코 過言은 아닐 것이다. 利用者들이 利用法을 모르고서 圖書館의 目錄이 이상하게 되었다느니, 왜 이렇게 資料가 없는것 투성이냐는 等 많은 不評과 不滿을 招來하기전에 미리 그들에게 친절한 가르침과 부드러운 利用案內를 하게 된다면 果然 “綜合化된 圖書館은 施設도 좋을 뿐더러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아주 훌륭하더라”하는 評을 듣게된다면 圖書館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 없는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첫째로 直接적으로 圖書를 整理하는 司書들은 로마자 表記에 對하여 完全을 期하여야 하며

둘째로 利用者들에게 로마자 表記法 및 圖書館 利用法을 매 學期初 또는 수시로 願하는 學生이나 校職員들에게 Library Orientation을 하여야 하며 이점은 더 나아가서는 有能한 參考司書가 별도로 定해져 있어서 全的으로 이 業務만 專擔했으면 더욱 좋겠다.

셋째로 確固不動한 圖書館 執務規定(Library

Staff Manual)이 完成되어야 하며,

넷째로 各種 逐次 刊行物에 對한 内容別 目次索引이 만들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利用者가 願하는 資料의 内容을 찾기위하여 그 많은 冊을 전부 훑어 보아야 할 弊端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어나갈때 圖書館의 利用은 별다른 問題點이 없이 圓滿히 지탱되어 나아갈 것이다.

5. 結論

大學圖書館은 大學社會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知的 資料源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大學이 目的하는 教育과 研究計劃을 보다 더 効率的으로 隨行하도록 적극적 支援을 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大學圖書館의 모든 資料는 利用者(學生, 教授, 校職員)가 恒常 正確하고 迅速하며 容易하게 使用하도록 組織되고 奉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圖書館 資料와 利用者間에 어떠한 障碍도 있어서는 안되어 學生과 校職員은 그들이 願하는 資料를 恒常 원활하게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現代와 같은 情報 繁榮 時代에 있어서는 재치 있는 司書들의 迅速한 情報 수집과 더불어 그 利用案內 또한 正確하고 迅速히 수행하여야만 하겠다. 그 中에서도 關覽用 目錄에 對한 利用法은 가장 重要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 서울大學校 學生들을 위시하여 大部分의 學生들은 大學 以前(高校時節)에 圖書館 資料를 利用할 수 있는 經驗이 거의 없었으며 또 大學生活을 하는 동안에도 圖書館 資料를 利用할 機會가 별로 없어서 圖書館 資料에 對한 關心이 적으며 또한 利用하는 習慣이 形成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實情을 考慮하여 그저 形式的인 圖書館案내보다는 오히려 關覽用 目錄이나 重要한 書誌의인 資料와 參考 圖書等의 實際의인 使用法을 具體的으로 잘 指導해야만 할 것이다. 圖書館의 利用法을 指導하는데 있어서 가장 效果的인 方法의 하나는 圖書

館利用法에 關한 學科目을 大學의 正規課程으로 履修하게끔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新入生에게는 圖書館利用法을 教養必修科目으로 한 學期만이라도 講義하게 한다면 그 效果는 大單히 클 것이다. 勿論 圖書館 利用法에 對한 指導는 學科目을 가르치는 教授들이 아니라 恒常 專門的인 知識과 人格을 겸비한 有能한 圖書館 職員(司書)에 依하여 實踐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學生이나 校職員이 圖書館에 對한 關心이 없고 圖書館 資料를 學習과 그리고 研究資料로, 또 校職員에 對해서는 業務에 對한 參考資料로서 利用되지 않는다면 그 圖書館의 奉仕는 거의 실패에 도달한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圖書館의 司書들은 專門職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좀더 圖書館資料에 對하여 精通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大學이 目的하는 教育課程과 教授方法에 關해서도 알고서 利用者들을 對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現代의 大學教育은 무조건 教授의 講義만을 為主로 하는 주입식 教育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學生의 創意力 그리고 判斷力を 살리도록 어떤 問題점만을 提示할 뿐 그 解決책은 學生 각者自身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그 問題에 對한 解決方法의 道具로서의 機能이 곧 圖書館의 資料를 利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몇몇의 學生들은 圖書館 資料를 利用하기 위하여 圖書館 閱覽席만을 利用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學生들은 學習보다는 趣味로, 또는 約束場所로 利用하고도 있다. 성실하게 오직 공부만을 하는 學生다운 學生들을 위해서는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圖書館에 對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Report를 쓴다거나, 갑자기 試驗을 치르게 될때 그때에 비로소 다급해 가지고 圖書館에 와서 目錄函의 Card를 이것 저것 만지다가 그래도 多行히 自己가 찾든 資料의 항목이 發見되면 簡單히 記錄하여 貸出係

에 제출하면 되지만 目錄函에 꽂혀있는 Card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이冊 주세요” 하는 學生을 보았을때 우리들(司書)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만약에 한 두명의 學生이 아니라 좀더 많은 學生들이 그런式으로 圖書館을 利用하게 된다면 圖書館의 원만한 運營은 아주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問題點도 事實은 다 圖書館의 利用法 특히 閱覽用目錄에 對한 利用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圖書館은 모름지기 하나의 奉仕기관으로써의 그 概念이 그저 단순한 친절만을 베풀것이 아니라 圖書館의 資料利用法 및 가장 重要한 目錄(閱覽用) 利用法과 圖書館의 施設을 適切하게 골고루 活用할 줄 알도록 指導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圖書館의 여러가지 規則들을 잘알아서 그 規則에 맞추어 自由롭고 유쾌하게 利用하도록 指導해야 하며 되도록 正確한 資料를 迅速히 제공하는 同時に 環境과 施設을 汚損하지 않도록 指導하여야 한다. 아울러 利用者들은 圖書館 職員(司書)들을 대할때 어디까지나 專門職 司書로서의 人格의in 대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勿論 어느때는 利用者들을 대할때 그 사람(司書)의 言行一體가 教養人으로서 또 知識人으로서 그리고 專門人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것은 그리 혼한 일은 아니다. 하루종일 수 많은 利用者들을 대하고 있으면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을 징그리게 되고 통명스럽고 짜증스럽게 對答을 하게 되곤한다. 그렇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조금만 참고 自己 차례를 기다리게 된다면 화를낸 사람自身이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미안해 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質意에 應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利用者와 그들을 대하는 圖書館 職員(司書)들 간에서도 서로 圓滿한 對話가 부드럽게 쏙터나갈 때 비로소 圖書館의 發展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專門職으로서의 圖書館 職員(司書)의 地位가 어느정도 確立된 바탕위에서라면 圖書館業務는 더 없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